

Great Master & Disciple

레온 플라이셔 & 탁영아



이 시대의 가장 저명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레온 플라이셔는 어린 시절 슈나벨을 사사하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던 연주자로, '이 세기가 발견한 피아니스트'라는 찬사를 받으며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던 피아니스트였다. 30대 중반 원인불명의 오른손 부상 때문에 30여년간 왼손 피아니스트로 커리어를 전환했던 그는, 피바디 음대 교수로 재직하며 예뎀 브론프만·조너선 비스·앙드레 와츠 등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기적으로 오른손의 움직임을 회복한 그는 양손 연주를 재개하며 왕성한 활동을 통해 다시금 최고의 피아니스트 반열에 올랐다. 플라이셔를 사사하며 그로부터 '음악적인 면과 테크닉적인 면 모두에 대단한 재능을 지녔으며, 훌륭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장이 될 피아니스트'라는 평을 받은 탁영아는 현재 미국 사우스이스턴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사우스이스턴 피아노 트리오 멤버와 솔리스트로서의 활동을 통해 연주자로서의 커리어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음악가로서의 긴 여정에 동기와 열정을 부여해준 위대한 스승 레온 플라이셔와 탁영아의 추억을 『인터내셔널 피아노』에서 소개한다.

스승과의 첫 만남이나 첫 레슨에 대한 기억은 어떠하셨는지요?

시카고에서 여름에 열리는 라비니아 페스티벌의 스티븐 인스티튜트에 참가했을 때 처음 선생님을 뵈었는데, 그때 받았던 레슨과 선생님의 연주가 제게 정말 인상깊게 남았어요. 몇 년 후 선생님과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피바디 음대에서 오디션을 보고, 선생님 앞에서 연주도 했지요. 오디션 날 도착하니 선생님께서 절 스튜디오로 안내해주시고, 손을 플라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드디어 플라이셔 선생님 앞에서 오디션을 하게 됐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벅차기도 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던 것이 생각나네요. 저는 그 날 브람스 〈소나타 2번〉과 베토벤 〈소나타 30번〉을 쳤는데, 연주를 마치고 나니 선생님께서 “너와 함께 공부하고 싶구나” 라고 하시며 활짝 웃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평소 스승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나요?

곡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후에는 그것을 위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치는 것이 아닌, 의도(Intention)를 가지고 연습하고 연주하는 것을 강조하셨지요. 악보를 잘 알고 거기에 충실해야 하며 전체적으로는 곡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리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려 하는지에 대해 알고 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피아노라는 악기만 잘 다루는 피아니스트이기보다 여러 가지 소리를 상상하고 낼 수 있으며, 더욱 넓고 깊게 음악을 받아들이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스승의 가르침이 선생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여기고 계신지요.

플라이셔 선생님은 음악가로서 앞으로 가야 할 긴 음악 여정에 동기 부여를 해주셨고 음악을 더욱 깊게 알아가고 싶은 열정을 가지도록 해주셨어요. 음악과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리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무조건 감정만 실어 치는 것이 아닌 음악의 형태(Shape)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과, 그를 위한 몸을 쓰는 방법 등 제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곡을 여러 가지 방법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왜' 라고 의문하는 능력이 길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듣고 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무엇이 정말 듣는 것이고 어떻게 듣는 것인지에 대해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고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든이 넘으신 지금에도 세계 곳곳에서 연주와 지휘 활동을 이어가시는 모습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일본 투어를 다녀오신 후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바로 다음날 레슨을 위해 스튜디오에 오셔서 『뉴욕 타임즈』를 읽고 계신 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연주와 티칭을 겸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스승의 말씀, 혹은 때때로 선생님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스승의 모습이 있는지요.

플라이셔 선생님께서 스승이었던 슈나벨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레슨 시간에 자주 해주셨듯이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 생각이 자주 납니다.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들을 학생들에게 하고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고, '선생님이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학생일 때는 선명하지 않던 것들도 제가 티칭을 시작하고나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며 새삼 깨닫게 되고,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스승과 연락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가끔씩 피바디 음대에 가서 선생님의 레슨을 청강하곤 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보면서 다시금 영감을 얻고 배워요. 선생님께서는 요즘 제가 어떤 곡들을 공부하고 연주하는지 물으시고, 또 연주와 티칭을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편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스승의 독특한 티칭 스타일이 있다면?

플라이셔 선생님께서는 레슨을 하실 때마다 학생들이 한 곡을 치고나면 가장 먼저 “방금 한 연주에 대해서 너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니? 만족스러운 점이란 그렇지 못한 점이란 모두 말해보렴”라고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그 후 학생이 한 말에 대해 선생님께서 함께 의견을 나눔으로써 레슨이 시작되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연주에 대해서 더욱 잘 비판할 수 있게 되었고,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해 졌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개인 레슨보다는 그룹 레슨을 선호하셨죠. 다른 학생들의 레슨을 청강함으로써 더욱 많이 배울 수 있고, 레퍼토리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선생님은 지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곡을 해석하실 때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악기나 구조와 많이 비유하시고, 레슨때 협주곡을 치게 되면 오케스트라 파트를 연주하는 학생에게도 각 악기의 소리를 피아노에서 내는 것에 대해 꼼꼼히 레슨을 하셨지요.

스승을 통해 특히 어떠한 점들이 발전했다고 여겨시나요?

선생님께서는 제게 음악과 각 작곡가에 대한 알맞는 개념(Concept)을 가지는 것과 악보에서 곡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습과 연주를 할 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 지적으로 더

욱 생생히 의식(Awareness)하게끔 해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것에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할까요.

스승을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있는지요?

아직도 때때로 선생님을 뵈기 때문에 선생님을 완전히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박사과정 에 있을 때 현재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 공개 채용되고나서 그것을 포기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할지 티칭을 시작할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티칭을 하면서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되고 연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학생들이 가르치다 보면 다양한 각도와 여러 방면으로 음악을 연구해야하고, 그럼으로써 혼자서 연주할때는 몰랐을 것들도 깨달을 수 있고 또 말로 형용하기 힘든 음악적인 것들도 학생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표현방식이 더욱 다양해 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연주자로, 또 음악가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죠. 지금도 그때 해주신 말씀이 항상 자국이 되고, 티칭과 연주 모두에 더욱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임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교육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학생들이 스스로 음악에 대해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기를 바라고, 자기 고유의 목소리(Voice)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 제 스승이 그랬듯이 저도 음악과 삶에 대해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해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이루고픈 목표와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번 가을 사우스이스턴 대학 교수 음악회와 실내악 연주가 있고, 올해 말에 MSR 레이블에서 독주 음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베니스 심포니와의 협연 및 사라 소타와 뉴욕 카네기홀 와일홀에서의 독주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습과 연주를 통해 제 자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발전해 나가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음악 앞에서 겸손한 마음, 인간적인 면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글 · 정리 | 신찬**